■ 민족문화연구 제83호(2019.05.31),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pp.287-308.
http://doi.org/10.17948/kcs.2019..83.287

국어사 교육에서 바라본 고대국어의 교육 내용과 석독구결*

김유범(金裕範)**

목 차

1. 머리말
2. 국어사 연구와 국어사 교육
3. 국어사 교육에서 고대국어의 위상
4. 고대국어의 교육 내용과 석독구결
5. 맺음말

국문초록

본고는 국어사 연구 못지않게 국어사 교육에 관심을 갖는 것이 국어사 연구자들에게 필요한 일이라는 입장에서 출발했다. 지금까지의 국어사 연구와 국어사 교육에 대한 현황을 시작으로 고대국어의 국어교육적 위상과 의의, 그리고 교육 내용에 대해 석독구결을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았다. 우리말이 어디에서 왔는지, 그리고 중세국어 이전에 우리말의 역사와 흔적은 어떠했는지에 답하기 위해 우리의 발길은 고대국어로 향할 수밖에 없다. 고대국어의 교육 내용과 관련해 국어사 교육이 추구해야 할 방향

* 이 논문은 2018년 8월 16-17일 양일간 제주 씨엘블루호텔에서 열렸던 제55회 구결학회 여름 전국 학술대회에서 발표되었던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심사 과정에서 여러 유익한 조언을 해 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 고려대 국어교육과 교수.

중 하나인 탐구 가능성을 충족시켜 주는 것이 석독구결이라는 점을 언급했다. 석독구결은 중국어로 된 한문이 국어와 통사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으며, 이를 우리말로 이해하기 위해 우리말의 문법적 요소들이 어떻게 구결자로 적혔는지를 보여 준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교육 내용이 된다. 그동안 국어사 연구에서 쌓아 온 석독구결에 관한 소중하고 가치 있는 연구 내용들이 국어사 교육에서 꽃피울 수 있도록 국어사의 연구와 교육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

주제어: 국어사 교육, 교육 내용, 고대국어, 차자표기, 석독구결, 탐구학습.

1. 머리말

국어의 역사에서 중세국어 이전 시기의 국어인 고대국어는 중세국어의 전신으로서 삼국시대는 물론 고려시대에 사용되었던 우리말의 특징이 어떠했는지를 살필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지닌다.[1] 주로 차자표기 자료들로부터 당시의 언어적 특성을 귀납해 내어야 한다는 점에서 고대국어 시기는 국어사의 그 어떤 시기보다도 연구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고대국어는 연구의 차원뿐 아니라 교육의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른다. 먼저 고대국어를 살필 수 있는 자료가 모두 한자를 이용한 차자표기 자료라는 점, 또한 그러한 차자표기 자료에 대한 분명하고 객관적인 국어학적 해석에 대한 합의가 쉽지 않다는 점, 그리고 교육과정에서 고대국어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이를 충분히 교육 내용에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언급해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출발로 하여 고대국어의 국어교육적 의의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고대국어와 관련해 어떠한 내용들을 가르치

1) 고대국어에 대한 논의에 앞서 먼저 고대국어의 범위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본고에서는 그동안 이루어진 구결 연구와 더불어 국어 자음 체계의 변화에 근거해 고대국어를 삼국시대부터 13세기까지 보려고 하는 다음과 같은 연구들의 견해를 따라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남풍현, 「古代國語의 時代 區分」, 『구결연구』 제11집, 구결학회, 2003.
: 삼국시대-13세기 중엽([상고] 삼국시대, [중고] 통일신라시대, [근고] 고려 초-13세기 중엽)
김무림, 『국어의 역사』, 한국문화사, 2004.
: 삼국시대-13세기([전기] 삼국시대-10세기 이전, [후기] 10-13세기)

는 것이 바람직할지에 대해 본격적으로 고민해 보고자 한다. 더불어 본고가 고대국어의 연구 못지않게 고대국어의 교육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이 국어사 연구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일임을 공감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2. 국어사 연구와 국어사 교육

국어사의 가치와 중요성은 우리가 국어를 계속해서 사용하는 한 퇴색되거나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2] 이러한 믿음은 국어사를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이 결코 필요 없거나 사소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해 준다. 알고자 하는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는 시대나 상황의 변화와 상관없이 항상 불이 켜져 있다는 점을 이러한 믿음의 근거로 삼고자 한다.

그동안 국어사는 비교적 오랜 시간 동안 연구되어 왔고 그 성과도 꽤 많이 축적되었다. 일제의 무단통치기를 겪으며 민족의식의 발로는 국어와 한글 연구로 이어졌는데, 그중에서도 중세국어를 중심으로 한 국어사 연구에 관심이 집중되었었다. 이와 같은 관심은 한글의 새로운 표기법을 마련하는 데에 기여했고 우리말의 뿌리를 캐는 어원 연구가 1920년대부터 시작되도록 했다.[3]

1940년『훈민정음』해례본의 발견과 더불어 일제의 극심한 억압은 우리로 하여금 역사 및 국어사 연구에 치중하게 했다. 이러한 상황은 1930년대 이래로 주력해 온 고어 해석과 어원 탐구, 그리고 향가 해독에서 발전된 성과를 보이게 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연구가 양주동 선생의『古歌硏究』(1942)이다.

이처럼 국어사 연구는 우리 민족과 그 운명을 같이 한다는 점에서 그 특별함을 지니고 있다.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오히려 우리만이 지닌 것의 가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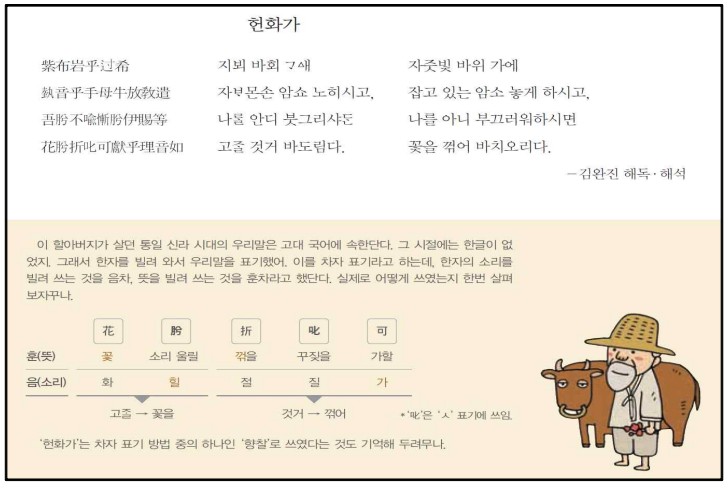
2) 이기문 교수의 다음과 같은 이야기는 우리에게 희망을 준다.
요즈음 우리나라 人文學의 앞날에 대한 비관론이 있습니다만, 저는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민족은 앞으로도 국어를 말하며 살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어가 살아 있는 한, 그 근원과 역사에 대한 관심이 우리 민족 사이에 끊어지지 않을 것으로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기문,「국어사 연구의 회고와 전망」,『국어사 연구 어디까지 와 있는가』, 태학사, 2006, 69-70면.

3) 우리나라 학자가 국어의 역사를 연구한다는 자각을 가지고 행한 최초의 것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가 거론된다. 權悳奎,「語源 叟」,『朝鮮語文經緯』, 京城: 廣文社, 1923, 131-137면.

가 중시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대한 염증과 반감이 일어나는 현실은 국어사 연구가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는 소중한 학문이라는 사실을 말해 준다. 우리는 국어사 연구를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해 가야 하는 앞으로의 과제를 가지고 있다.

20세기 들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21세기에도 지속되고 있는 국어사 연구는 짧은 시간 동안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 왔다. 여기에는 새로운 자료들을 발굴하거나 새로운 연구 방법론을 적용해 보는 무수한 노력들이 있었다. 새롭게 밝혀낸 국어사적 사실들은 현대국어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도 큰 도움을 주었고 세계의 문자사나 언어학사 기술에서 참고할 만한 유익한 사실들도 밝혀내었다.

그러나 그동안 학교에서 진행되어 온 국어사 교육은 국어사 연구의 이러한 발전과는 동떨어져 있는 모습을 보여 준다. 국어사 연구에서 밝혀낸 새롭고도 가치 있는 연구 결과가 국어사 교육에서는 그 빛을 발하지 못하고, 수십 년 전의 내용들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 새롭고 역동적인 연구의 분위기를 전하지 못하고 있다. 한 가지 구체적인 예로 향가 〈헌화가〉를 대상으로 한 국어 교과서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자.


헌화가

紫布岩乎过希　지뵈 바회 ᄀᆞ새　자줏빛 바위 가에
執音乎手母牛放敎遣　자보몬손 암쇼 노히시고,　잡고 있는 암소 놓게 하시고,
吾肹不喻慚肹伊賜等　나ᄒᆞᆯ 안디 붓그리샤ᄃᆞᆫ　나를 아니 부끄러워하시면
花肹折叱可獻乎理音如　고ᄌᆞᆯ 것거 바도림다.　꽃을 꺾어 바치오리다.

－김완진 해독·해석

이 할아버지가 살던 통일 신라 시대의 우리말은 고대 국어에 속한단다. 그 시절에는 한글이 없었지. 그래서 한자를 빌려 와서 우리말을 표기했어. 이를 차자 표기라고 하는데, 한자의 소리를 빌려 쓰는 것을 음차, 뜻을 빌려 쓰는 것을 훈차라고 했단다. 실제로 어떻게 쓰였는지 한번 살펴보자꾸나.

	花	肹	折	叱	可
훈(뜻)	꽃	소리 울릴	꺾을	꾸짖을	가할
음(소리)	화	힐	절	질	가

고즐 → 꽃을　　것거 → 꺾어　　*'叱'은 'ㅅ' 표기에 쓰임.

'헌화가'는 차자 표기 방법 중의 하나인 '향찰'로 쓰였다는 것도 기억해 두려무나.

[그림 1] 고등학교 국어Ⅱ 교과서(창비).

[그림 1]은 우리말의 변천과 관련해 향가 〈헌화가〉를 통해 고대국어를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 내용만으로 고대국어를 소개한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임을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고대국어가 어떤 모습과 특징을 지닌 언어인지는 전혀 언급도 못하고 차자표기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고대국어의 교육 내용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비단 이 교과서뿐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교과서들에서 '고대국어=차자표기'라는 것이 암묵적인 약속처럼 보인다.

학습자의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한 교육 내용의 축소라는 현실적인 제약을 감안해 이와 같은 부분은 놓아두더라도 [그림 1]은 향가 해독 및 해석과 관련해 아쉬움이 있다. 마지막 구절의 '獻乎理音如'에 대한 해독이 '받ᄌᆞ오림다'[4] 이후 '받ᄌᆞ보림다'[5], '바도림다'[6] 등으로 이루어진 것은 큰 진전이었음에 틀림없다. 그것은 그 이전까지 이곳의 '音'만을 'ㅇ'로 읽어 온 오래된 관습에서 탈피했기 때문이다.[7]

그 후 고려시대 석독구결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며 이때의 '音如'가 본래는 '音叱如'이며, 이것은 "당위/의무, 가능성/능력"과 같은 양태적 의미를 갖는 '-ᄆᆞ다' 형태의 어미라는 사실이 밝혀졌다.[8] 석독구결 자료들에서 나타나는 'ᄀᆞᄒᆞᆫ', 15세기 『삼강행실도』(충신도)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ᄆᆞ다'(뵈ᄋᆞᆸ다)의 존재는 〈헌화가〉 중 '獻乎理音如'의 '音如'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이는 고대국어에서 중세국어로 이어진 문법 요소로서 국어 문법사에서 매우 가치 있는 존재이다.

[그림 1]에서처럼 '獻乎理音如'의 해독을 '바도림다'로, 해석을 '바치오리다'로 한다면 '獻乎理音如'는 동사 어간 '받-', 선어말어미 '-오-', '-리-', '-음-',

---

4) 김준영, 『鄕歌文學』, 형설출판사, 1979, 91-98면.
5) 서재극, 『신라 향가의 어휘 연구』, 계명대 출판부, 1975, 8-10면.
6) 김완진, 『鄕歌解讀法硏究』, 서울대 출판부, 1980, 68-70면.
7) 이와 관련해 『국어사개설』에서는 다음과 같이 여전히 '音'을 'ㅇ'로 보고 있다.
獻花歌의 "獻乎理音如"의 '音'자가 중세국어의 공손법 어미 '-ㅇ-'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ㅁ'(m)을 나타낸 '音'이 사용된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 이기문, 『新訂版 國語史槪說』, 태학사, 1998/2008, 91면.
8) 이에 대한 정리된 논의는 박진호, 「鄕歌 解讀과 國語 文法史」, 『국어학』 제51집, 국어학회, 2008, 321-322면을 참조할 수 있다.

어말어미 '-다'와 같은 문법적 구성을 상정하게 된다. 이것이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音(叱)'의 존재와 그 의미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 중세국어에까지 이어진 고대국어의 어미 '-ㅆ다'의 존재와 의미에 대한 국어사 연구의 성과를 조금이라도 보여 줄 수 있는 장치가 있었다면 훨씬 흥미로웠을 것이다.

한편, 국어사 교육은 중등학교와 대학교 모두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먼저 중등학교의 경우 국어사와 관련된 내용은 훈민정음 관련 내용을 제외하면 고등학교에 가서야 처음 접하게 된다. 국어가 역사적으로 변화한다는 사실조차 대부분의 학생들은 알고 있지 못하다. 또한 교육과정의 잦은 개편에서 국어사 관련 내용들이 나날이 줄어들고 있어 학생들이 국어사와 관련해 배우게 되는 내용은 점점 빈약해져 간다. 문학 수업에서 고전 작품을 현대어로 번역해 학습하고 있는 상황도 관련이 있다.

이와 달리 대학에서는 전공이 있어 보다 전문적이고 진지한 국어사 교육이 진행되리라 기대한다. 그러나 현실은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 일부 소수를 제외하면 초등학교와 중등학교를 거치며 복잡하고 어려운 것을 참을성 있게 공부해 보지 못했던 많은 학생들은 국어사 수업에 마음의 문을 닫는다. 국어사가 전공 필수가 아닌 경우 국어사는 피해야 하는 과목이며, 전공 필수라고 하더라도 어떻게든 때우는 식으로 한 학기를 견디는 것이 요즘 일반적인 대학 강의실의 학생들 모습이다.

현실에서 이와 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국어사 자체가 근본적으로 지니고 있는 내용의 심오함과 난해함, 그리고 한자는 물론이고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낯설고 특이한 한글 표기가 학생들로 하여금 국어사를 가까이하기에 힘든 대상으로 만든다. 게다가 교수가 국어사의 내용을 학생들의 입장과 눈높이를 고려해 가며 부단히 정비하고 그것에 맞는 교수법을 개발해야 하는데, 오늘날 대학의 현실은 교수들을 수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놓아두지 않는다.

어려움은 있지만 어떤 경우이든 기본적으로 국어사 연구가 국어사 교육을 뒷받침하지 않으면 교육은 내용이 없는 공허한 것이 되고 만다. 문법 교육을

전공한다며 국어사 교육의 이런저런 측면을 논문을 통해 이야기하지만, 정작 국어사를 연구하지 않으면서 그 교육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사상누각일 수밖에 없다. 훌륭한 교수법도 교수법 자체에 대한 교육학적 접근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용에 대한 철저한 장악과 치열한 고민 속에서만 나올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국어사 연구자들은 대부분 연구된 내용들이 어떻게 교육되는지 잘 알지 못하며 그것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지도 않는다. 그러나 연구 내용이 우리가 가져야 할 지식의 체계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하며 이것이 어떠한 가치를 만들어 내는지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그것은 일반인들에게 국어사와 관련해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의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되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국어사 연구자들은 국어사의 연구와 교육이 동떨어진 것이 아니며, 연구에서 거둔 수확들을 교육적으로 정비해 가르치는 일의 중요성에 대해 새롭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3. 국어사 교육에서 고대국어의 위상

국어교육에서 국어사를 가르치는 일은 당연한 것이며 국어 자체에 대한 지식 중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왔었다. 그러나 국어교육이 말하고 듣고 읽고 쓰는 언어 기능을 중심으로 전개되며 국어사는 국어교육의 중심에서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다. 당장 학생들의 말하고 듣고 읽고 쓰는 능력을 직접적으로 향상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꼭 필요하고 중요한 교육 내용이 될 수 없다는 논리가 팽배해 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돈이 안 되는 학문은 필요 없는 것으로 취급하는 세태와 궤를 같이하고 있다.[9)]

이와 같은 현실에서 국어사를 교육한다는 것은 참으로 많은 어려움을 안고

9) 좋은 글을 쓰기 위해서는 독서를 비롯한 삶의 많은 부분들에 대한 경험이 필요하다. 또한 삶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들은 학교를 졸업하고 세월이 한참 흐른 뒤에야 진정한 힘을 발휘한다. 당장 써먹을 수 있는 것만을 골라 학교에서 가르친다면 우린 상대적으로 번거로운 체제로 된 학교가 아닌, 실용적인 맞춤형 교육이 가능한 학원을 다니면 될 일이다. 지금 당장 시험 문제를 풀기 위한 지식이 아닌, 평생을 지니고 가며 불현듯 떠올려 사용할 수 있는 지식과 지혜가 학교에서 배우고 가르쳐야 할 것들이다. 학교 교육은 이런 것이 되어야 한다.

있다. 현대국어가 지닌 다양한 문법적 특성들을 가르치는 일조차도 이런저런 이유로 제약을 받는데, 현대국어 이전의 국어에 대해 다루는 일이 달갑게 느껴질 리 없다. 최근의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국어사의 비중이 현저하게 줄어든 것을 볼 수 있다. 비록 미흡한 면이 많았지만 그래도 그 이전 교육과정들에서는 국어사 전체를 언급할 수 있었으나, 이번 교육과정에서 국어사는 주로 중세국어만을 언급하는 것으로 그 범위가 크게 축소되었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 현행 2015 개정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중고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국어사와 관련된 부분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밑줄은 필자)

① 공통 교육과정(공통 과목)

가. 고등학교 1학년 문법 영역 성취기준

[10국04-01] 국어가 변화하는 실체임을 이해하고 국어생활을 한다.

나. 학습 요소

국어의 역사성,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 음운 변동(비음화, 유음화, 된소리되기, 구개음화, 두음 법칙, 모음 탈락, 반모음 첨가, 거센소리되기), 문법 요소(높임 표현, 시간 표현, 피동 표현, 인용 표현), 한글 맞춤법의 원리, 한국어의 발전에 관심 갖기(한국어의 위상, 국어 사랑)

다. 해설

[10국04-01] 이 성취기준은 구체적인 국어 자료를 통해 국어가 변화하는 실체임을 이해하고 국어 활동을 하는 자세를 기르기 위해 설정하였다.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의 특징을 개략적으로 이해하되, 한글 창제 후의 중세 국어 자료와 현대 국어 자료를 비교하며 국어의 역사성을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도록 한다.

라.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 사항

국어의 변화를 지도할 때에는 국어사의 세부 사항을 자세하게 학습하기보다는 학습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 자료를 사용하며, 시기는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로 한정하여 학습 부담을 줄여 주도록 한다. '훈민정음 언해본'처럼 널리 알려진 자료를 활용하되, 현대 국어와의 차이를 중심으로 변화의 양상을 개략적으로 이해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

마. 평가 방법 및 유의 사항

국어의 변화와 관련된 평가에서는 시대별 언어의 특징에 대한 지식을 묻기보다 현대 국어와의 차이를 알고 언어가 변화하는 것임을 깨닫는 데 중점을 둔다.

② 선택 중심 교육과정(일반 선택)

가. 언어와 매체 중 '국어의 탐구와 활용' 영역 성취기준

[12언매02-08] 시대 변화에 따른 국어 자료의 차이에 대해 살피고 각각의 자료에 나타나는 언어적 특성을 이해한다.

나. 해설

[12언매02-08] 이 성취기준은 국어의 변천 과정에 대한 이해를 통해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국어에 대한 이해 수준을 심화하는 자세를 기르기 위해 설정하였다. 차자 표기 자료로 남아 있는 고대 국어, 한글 창제 이후의 중세 국어의 모습을 보여 주는 자료 중에서 내용이나 표현이 쉽고, 짧으며, 학습자가 공감할 수 있는 자료를 활용하되, 상세한 국어사 지식의 학습보다는 개략적인 어휘의 변화를 살피는 데 중점을 둔다.

다.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 사항

시대 변화에 따른 국어 자료의 차이를 이해하도록 지도할 때에는 국어사적 지식을 세세하게 학습하기보다는 국어 변화의 개략적인 모습을 살피는 데 중점을 둔다.

라. 평가 방법 및 유의 사항

시대 변화에 따른 국어 자료의 차이, 사회나 갈래에 따른 국어 자료의 차이에 대한 이해를 평가할 때에는 개인 혹은 모둠별 프로젝트 과제를 제시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①은 공통 과목인 '국어', ②는 일반 선택 과목인 '언어와 매체' 부분의 교육과정 중 국어사와 관련되는 내용들로서 ①에서는 현대국어와의 차이에 중점을 두어 중세국어를, ②에서는 자료의 활용 측면에서 고대국어와 중세국어를 언급하고 있다. ①과 ② 모두 국어사 자체 지식보다는 현대국어와의 차이 또는 이해하기 쉬운 국어사 자료를 통한 개략적인 어휘 변화 정도를 보여 주고자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국어사는 각 시대의 국어의 모습이 통시적으로 다루어지고 이해될 때 의미가 있다. 비록 중세국어가 국어사에서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고대국어와 근대국어가 없는 중세국어는 그 진면목을 제대로 평가 받을 수 없다. 또한 중세국어와 현대국어만을 비교하여 알 수 있는 내용이란 피상적이거나 때론 오히려 그릇된 이해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으므로 변화의 과정 전체가 고려되지 않는 국어사 교육은 그리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다.

중세국어와 현대국어의 교량적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는 근대국어는 중세국어와 현대국어의 비교에서 반드시 참조해야 할 요소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오늘날 현대국어가 지닌 변화된 모습은 근대국어 시기에 나타난 것이 많으며, 이것은 그 시기에 존재했던 국어의 변화 법칙과 양상을 따른 결과라는 점이 중요하다. 언어가 어떤 시기에 변화했는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이유로 어떻게 변화했는가 하는 것이 보다 중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①에서는 전혀 그 언급이 없고 ②에서 '차자 표기 자료' 정도로 언급된 고대국어의 문제 또한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국어사에서 중세국어는 어디에서 왔는가 하는 점과 중세국어 이전에 우리말의 역사와 흔적이 있다는 사실을 덮을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고대국어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차자표기로 기록된 "내용이나 표현이 쉽고, 짧으며, 학습자가 공감할 수 있는 자료"라고 하는 것이 과연 교육적으로 가능한 것이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국어사 교육에서 고대국어는 차자표기를 소개하는 정도로 그 내용이 언급되어 온 사실도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물론 표기로부터 자유로운 국어의 역사는 있을 수 없지만, 국어교육에서 중세국어나 근대국어에 비해 고대국어는 유독 표기에 강하게 매여 있었다. 접근 방식을 달리해 차자표기를 통해 알 수 있는 고대국어의 특징들이 쉽고 다양한 방식으로 교육되었다면 고대국어에 대한 이미지는 지금보다는 훨씬 긍정적일 수도 있었으리라 생각한다.

①과 ②에서 볼 수 있듯이 국어교육에서 고대국어가 이처럼 외면 받은 경우는 이제까지 없었다. 지난 교육과정인 2009 개정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14호)에서 고대국어가 언급되었던 부분을 참조해 보면 그 위상의 변화를 쉽게 알 수 있다.[10] 비록 '간략하게'라는 단서가 붙어 있긴

10) 국어Ⅱ 중 [문법]과 관련된 ⑪, 독서와 문법 중 '국어 자료의 탐구'와 관련된 ㉖에서 고대국어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밑줄은 필자)
⑪ 국어의 변천을 이해하고 국어의 발전 방향을 탐구한다.
고대, 중세, 근대 국어의 시기를 거치면서 국어가 어떻게 변해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변화하고 발전할 것인지 탐구하고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국어 속에 선인들의 사고가 어떻게 반영되어 왔는지 국어의 변천을 통해서 이해하고 바람직한 국어 사용의 방향까지 모색해 보도록 한다. 국어의 미래와 관련하여 남북한의 언어 동질화 문제를 다루고 국어의 위상과 발전 방향을 탐구하여 본다.
㉖ 국어 자료를 읽고 국어의 변천을 탐구한다.

하지만 고대국어로부터 현대국어에 이르기까지 국어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탐구하고 이해하는 것을 주요 교육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것은 적어도 국어사 교육의 기본에는 충실한 것이었다.

이렇게 볼 때 국어사 교육 자체가 매우 약화 된 이번 교육과정에서 고대국어가 국어교육 분야에서 걸어가야 할 길은 매우 험난하게 느껴진다. 물론 앞으로 교육과정이 어떤 방향으로 바뀌게 될지는 누구도 예측하기 어렵지만, 이를 대비하는 것이 국어사의 연구와 교육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책무라고 생각된다. 특히 고대국어에서 꼭 가르쳐야 할 중요하고 가치 있는 교육 내용들을 잘 정비하여 제시해 두는 것이 미래의 국어사 교육을 위한 가장 필요하고도 확실한 준비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4. 고대국어의 교육 내용과 석독구결

고대국어와 관련해 무엇을 교육 내용으로 해야 하는가는 1차적으로 고대국어 연구자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이들이 고대국어를 연구한 경험과 결과를 토대로 고대국어가 지닌 특징을 잘 보여 주는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 가장 알고 있는 전문가들이기 때문이다. 국어사적 측면을 고려하면 먼저 중세국어나 근대국어가 지닌 특징과는 다른, 고대국어만의 언어 특징이나 후대 언어 현상의 출발이 되는 중요한 언어 양상, 그리고 고대국어를 기록해 놓은 자료의 표기와 관련된 내용들이 거론될 수 있을 듯하다.

이와 더불어 고대국어의 교육 내용 선정에서 국어교육적 관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고대국어의 여러 가지 내용 중 어떤 것을 교육 내용으로 선정해야 하는지에 대해 국어교육을 바라보는 전체적인 시각에서 조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국어과 내용 체계인 '지식, 탐구와 적용, 태도'에 따라

국어의 역사적 자료를 통하여 시대에 따른 국어 변천의 양상을 탐구하고 선인들의 삶을 이해하려면 국어에 대한 역사적 이해가 필요하다. 기본적으로는 차자(借字) 표기와 한글 표기의 양상을 탐구하고, 나아가서는 고대 국어, 중세 국어, 근대 국어의 시대에 걸친 음운과 표기, 단어와 문장의 주요 변천 양상을 간략하게 이해할 수 있다. 이때 사용되는 국어 자료는 역사적으로 교육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하며, 이를 통하여 우리의 말과 글에 대한 소중한 국어 의식을 고양할 수 있도록 한다.

제시한 다음과 같은 국어사 교육 내용의 선정 기준을 참조해 볼 수 있다.[11]

③ 가. 지식
학술적 명확성, 학습 난이도, 시기별 대표성, 고전문학 해석과 관련한 실용성
나. 탐구와 적용
학습자의 탐구 가능성, 현대국어와의 연관성, 언어 사용 기능의 신장, 우리말과 문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가능성
다. 태도
국어사 지식 자체의 흥미, 국어사에 대한 흥미 유발 가능성, 국어문화에 대한 흥미 유발 가능성

③은 세 가지 측면에서 국어사 교육 내용의 선정 기준을 제시한 것인데, 고대국어의 교육 내용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도 고려되어야 할 기준이라고 생각한다. 이 중 ③가에서 '고전문학 해석과 관련한 실용성'은 향가의 이해와 연관된 유용한 기준이다. 또한 ③다에서 '국어사 지식 자체의 흥미'나 '국어사에 대한 흥미 유발 가능성'은 고대국어에서 선정될 내용이 어떠해야 할지를 고민할 때 항상 유념해야 할 대목이다.

특히 ③나의 '학습자의 탐구 가능성'이나 '우리말과 문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가능성'은 본고에서 이후로 논의하려고 하는 석독구결과 관련해 중요한 선정 기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고대국어의 교육 내용이 단순히 국어사 지식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가 국어사의 모습을 담고 있는 자료를 탐구 과정을 통해 학습하고 이러한 학습의 결과가 우리말과 문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는 계기가 되는 것이 바람직한 교육 방향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며 필자가 고대국어와 관련해 교육 내용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정리해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④ 가. 고대국어 소개 내용
국어의 기원과 형성

11) 박형우, 「국어사 교육 내용의 선정 기준」, 『국어사연구』 제16호, 국어사학회, 2013, 22-28면.

나. 고대국어의 음운 관련 내용
　　된소리 계열의 미형성, 모음조화
다. 고대국어의 문법 관련 내용
　　명사형 어미(-ㄴ, -ㄹ), 명사 부정법과 동사 부정법
라. 고대국어의 어휘 관련 내용
　　고구려와 신라의 어휘 차이 예 買(*ᄆᆡ) vs. 勿(*믈)
　　고유어에서 한자어로의 변화 예 居西干/次次雄/尼師今/麻立干 vs. 王
마. 고대국어의 자료 관련 내용
　　고유명사 표기 자료, 향가 자료, 이두 자료, 구결 자료
바. 고대국어의 표기 관련 내용
　　차자표기의 기본 원리, 석독구결의 특징

④가는 국어가 어디에서 왔는지, 그리고 고대국어로부터 오늘날의 국어는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으로서 국어의 역사를 큰 시각에서 조망함으로써 국어가 어떤 언어인가를 보여 줄 수 있다. 특히 상식처럼 되어 있는 국어의 알타이어족설에 대한 객관적 시각에서의 이야기는 '국어사에 대한 흥미 유발 가능성'을 지닌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④나는 오늘날과 같이 '예사소리(평음)-거센소리(격음)-된소리(경음)'와 같은 전형적인 자음 조직이 고대국어에는 형성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 국어 어휘들의 기본적인 형태가 모음조화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을 교육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대국어와의 차이와 더불어 국어의 초기 모습에 어떠한 특성이 있었는지를 보여 줄 수 있는 유익한 내용이다.

④다는 오늘날 관형사형 어미로 기능하는 '-ㄴ', '-ㄹ'이 고대국어에서는 명사형 어미로도 기능했었다는 점, 부정의 대상이 명사인지 동사인지에 따라 그 부정법이 달랐었다는 점을 교육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관형사형 어미의 역사적 변화와 관련해 고대국어를 살펴봄으로써 관형사형 어미의 전반적인 변화 과정을 탐구하고 정리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기초로 삼을 수 있다.

④라는 고대국어를 이루고 있는 삼국의 언어 특성과 관련해 고구려와 신라의 언어에 차이가 있었다는 점, 고유어 어휘가 중국의 영향으로 점차 한자어로 바뀌어 간 사실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을 교육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고대국어

에 존재했던 어휘들을 직접적으로 관찰하며 오늘날의 국어를 이루게 된 국어 어휘의 바탕과 변화 양상에 대해 학습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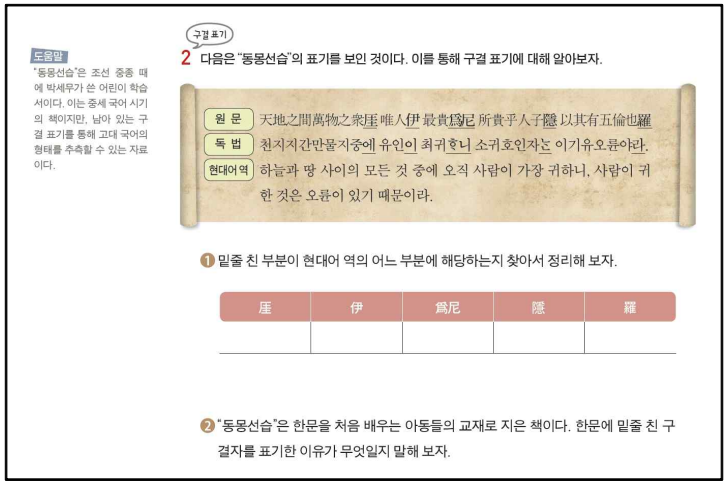
④마는 고대국어를 담고 있는 자료의 유형을 보인 것으로 고대국어의 자료는 어휘 자료와 문장 자료, 독해를 위한 자료와 창작을 위한 자료 등 다양한 기준에 따른 구분이 가능하다. 지금까지 교과서에 주로 향가 자료는 서동요, 이두 자료는 임신서기석이 실려 있었는데, 이것은 ③과 같은 선정 기준이 충분히 고려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구결 자료를 포함해 보다 대표성과 탐구 및 흥미 유발 가능성을 지닌 자료들을 선별해 고대국어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필요가 있다.

④바는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 우리말 표기에 사용했던 고대국어 당시의 특징적인 표기, 즉 차자표기에 관한 교육 내용이다. 고대국어 하면 차자표기를 떠올릴 정도로 차자표기는 고대국어를 특징짓는 상징적인 요소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차자표기가 바로 고대국어 전체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 그리고 지금까지 본격적으로 소개되지 않았던 석독구결에 대한 언급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차자표기에 대한 교육 내용에 변화가 요구된다고 생각한다. 특히 고대국어의 표기와 관련해 석독구결의 특징에 대한 이야기는 '학습자의 탐구 가능성'이나 '우리말과 문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가능성'과 더불어 '국어사에 대한 흥미 유발 가능성'까지 보여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교육 내용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제시된 고대국어 관련 교육 내용은 중세국어 교육 내용만으로는 보여 줄 수 없는, 예상하지 못한 국어의 또 다른 모습을 접하게 해 준다. 국어사 연구의 측면에서 고대국어는 아직도 밝혀야 할 부분들이 많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도 많지만, 국어사 교육과 관련해 이 정도의 내용들을 정비해 가르치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비록 현행 교육과정에서는 고대국어 교육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미래의 새로운 교육과정들에서 정상적인 국어사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④와 같은 교육 내용들이 흥미롭고 짜임새 있게 정비되어 제시될 필요가 있다.

특히 ④바와 관련해 석독구결은 그동안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오며 국어사 연구에 기여한 것에 비해 국어사 교육에서는 그 특징은 물론이고 존재조

차도 제대로 소개되지 않았다. 필자는 석독구결이 한자 사용의 기피, 학습량의 경감 등과 같은 미명 아래 정작 가치 있는 교육 내용이 배제된 대표적인 경우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국어사 교육에서 구결을 학습 내용으로 다룬 경우는 다음과 같은 정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림 2] 고등학교 국어Ⅱ 교과서(천재).

[그림 2]는 고대국어 교육 내용 중 하나로 제시된 것인데, 실제로 다루고 있는 자료는 중세국어 시기의 것이다. 이 자료의 구결 표기를 통해 고대국어의 형태를 추측할 수 있다고 설명한 '도움말'은 정작 도움이 되지 않는 말이다. 구결로 되어 있으면 그것이 모두 고대국어라는 잘못된 인식을 갖도록 해 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국어사 연구자들이 국어사 교육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를 직접적으로 보여 주는 '모범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구결에 대한 [그림 2]와 같은 교육 내용은 구결을 통해 알 수 있는 국어의 역사적 모습을 왜곡한 것은 물론, 구결의 쓰임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전형적인 자료가 제시되지도 않았다는 점에서 교육적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아마도 학생들은 원문에 동일하게 본체자로 적힌 한자들을 보고 본래의 한문 원문과 보조적으로 기입된 구결자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도 구별하

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스스로의 탐구를 통해 이 활동의 중요한 목표인 구결자를 표기한 이유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고대국어 교육에서 구결에 관해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석독구결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석독구결은 자토석독구결과 점토석독구결로 나뉘지만, 국어사 교육에서는 1차적으로 자토석독구결을 언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석독구결과 관련해 교육적으로 다음과 같은 점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⑤ 가. 한자의 약체자를 사용한 보조적 표기
나. 한문의 이해에 우리말의 문법적 요소 활용
다. 한문 문장을 우리말 어순에 따라 풀어 읽기

먼저 ⑤가는 구결자의 쓰임과 관련해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한문의 학습에서 일종의 보조적인 이해 수단으로서 구결자가 사용된다는 점, 동일한 구결자의 잦은 반복과 더불어 빠른 필기를 위해 한자의 본자(本字)가 아닌 생획자(省劃字)를 사용한다는 점은 구결자의 사용 목적이 무엇이고, 실제 형태가 왜 한자의 생획자로 되어 있는지에 대해 스스로 탐구해 볼 수 있도록 해 주는 좋은 제재가 된다.

특히 한자의 본자와 생획자를 비교해 보고 그 특징을 살펴보는 것도 인간이 지닌 보편적인 인지 양상의 한 예를 경험하도록 하는 흥미로운 내용이 된다.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예들을 통해 우리는 ⑤가와 관련된 구결자의 특성을 접해 볼 수 있다.

⑥	본자		생획자
가.	古	⇨	ㅁ
나.	矣	⇨	ㅅ
다.	叱	⇨	ㅊ
라.	知	⇨	矢
마.	爲	⇨	ㅗ
바.	隱	⇨	ㄱ

⑥가-라는 획을 생략한 부분이 각각 상하좌우라는 점을, ⑥마는 '爲'자의 머리 부분(爫)을, ⑥바는 '隱'자의 왼쪽 부분(阝)을 보다 간략하게 만든 경우라는 점을 보여 준다. 개별 구결자가 어떤 한자의 생획자인가를 아는 것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생획의 양상과 이러한 생획자를 사용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는 것이 교육적 의의가 있다.

다음으로 ⑤나는 외국어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일반적인 양상과 관련된 내용이다. 이것은 중국어가 기반인 한문을 그와는 다른 언어인 국어로 이해할 때 어떤 요소들이 필요한지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조사나 어미와 같은 문법적 요소들이 발달한 국어는 외국어를 이해하고 수용할 때에도 이와 같은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사실을 석독구결 자료가 분명하게 보여 주기 때문이다.

⑦ [한문원문] 衆生發菩提心
[구 결 문] 衆生ㅣ 菩提心ㄹ 發ㅅㅂㅣ

⑦에서 한문 원문 '衆生發菩提心'은 '衆生'이 주어, '發'이 동사, '菩提心'이 목적어가 되는 문장으로 중국어의 전형적인 문장 구조를 보여 주고 있다. 이것을 구결문에서는 우리말의 문장 구조에 따라 순서대로 '衆生'이 주어, '菩提心'이 목적어, '發'이 동사가 되도록 변형하였음을 볼 수 있다. 더불어 이때 'ㅣ', 'ㄹ', 'ㅅㅂㅣ'와 같은 구결자가 덧붙었는데, 이것은 각각 보조사 '은', 목적격 조사 '을', '發ᄒᆞ다'의 어간 일부 및 어미 'ᄒᆞᄂᆞ다'를 나타낸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말과 문장 구조가 다른 중국어를 국어화하는 과정이 어떠했는지를 보여 준다는 점에서 무척 흥미롭다고 할 수 있다. 이때 구결자로 표기된 대상들이 조사나 어미 등과 같은 우리말의 문법적 요소라는 점이 주목된다. 우리말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고대국어 자료를 통해 선명하게 보여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적 의의가 돋보인다. 더불어 이때 사용된 문법적 요소들이 다른 시대와는 구별되는, 고대국어의 특징을 보여 주는 요소가 된다는 점도 교육적 의의를 높여준다.

한편, ⑤다는 석독구결이 지닌 가장 큰 특징과 관련된 내용이다. 후대의 음독구결과는 달리 석독구결은 한문 문장을 우리말 어순에 따라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준다는 점에서 다른 차자표기 자료들이 갖지 못한 특징을 보여 준다. 왼쪽과 오른쪽에 배치된 구결자와 역독점을 통해 문장 구조를 파악하게 되는 흥미로운 장치는 국어사 교육에서 탐구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생각된다. 더불어 중국어와 국어의 통사적 차이가 무엇인지를 직접 비교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도 언어 교육적으로 유익한 교육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12)]

실제로 석독구결과 관련된 이와 같은 내용을 학생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소재를 가지고 소개해 보는 것도 효과적일 수 있을 듯하다. 구체적인 예로서 『훈민정음』 언해본의 어제서문 중 ⑧과 같은 부분은 이미 학생들에게 친숙한 소재이다. 석독구결의 이해를 위해 이를 ⑨와 같이 활용해 본다면 학생들은 보다 쉽고 흥미롭게 석독구결에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⑧ 가. [한문원문]
予爲此憫然新制二十八字
나. [구 결 문]
予ㅣ 爲此憫然ᄒᆞ야 新制二十八字ᄒᆞ노니
다. [언 해 문]
·내 ·이·ᄅᆞᆯ 爲·ᄒᆞ·야 :어엿·비 너·겨 ·새·로·스·믈 여·듧 字·ᄅᆞᆯ 밍·ᄀᆞ노·니

⑨

予ㅣ 新로 制ᄒᆞ노니 二十八字ᄅᆞᆯ、

12) 이것은 대조언어학 및 언어유형론적 관점에서도 흥미로운 내용이 된다. 유형적 차이를 보이는 두 언어를 직접 대조해 보는 경험은 학습자로 하여금 언어마다 어떤 고유한 특성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다른 외국어의 특성을 어떻게 국어화하는지를 스스로 체험할 수 있게 해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⑨는 ⑧의 밑줄 친 부분, 특히 ⑧나와 ⑧다의 밑줄 친 부분들이 석독구결의 차원에서는 어떻게 이해되는지를 보여 준다. ⑨에서 주격 조사 'ㅣ', 부사격 조사(또는 부사파생접미사) '로', 목적격 조사 'ᄅᆞᆯ' 및 활용형 'ᄒᆞ노니', 역독점(丶)이 한문 원문의 좌우에 구결 형식으로 표기됨으로써 우리는 한문 '予-新制二十八字'가 우리말로 어떻게 이해되는지를 알 수 있다. 이는 비록 석독구결에 나타나는 본래의 구결자 형태를 보여 주지는 못해도, 한문 원문의 좌우에 훈민정음으로 구결자를 적어 중국어와 국어의 통사적 차이가 무엇인지를 간결하면서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13]

석독구결과 관련된 이와 같은 내용들은 학습자의 탐구 가능성, 우리말과 문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가능성, 국어사와 국어문화에 대한 흥미 유발 가능성과 같은 국어사 교육 내용 선정의 기준들에 잘 부합하고 있다.[14] 이와 같은 내용들을 교육적으로 가공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학습자의 눈높이를 고려하며 현실에 맞는 국어사 교육 내용이 되도록 절차탁마하는 과정이 요구된다. 이제까지 국어사 연구에서 쌓아 온 석독구결에 관한 소중하고 가치 있는 연구 내용들이 국어사 교육에서 꽃피울 수 있도록 국어사의 연구와 교육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노력이 보태지기를 기대한다.

5. 맺음말

이제까지 국어사 연구와 국어사 교육에 대한 언급을 시작으로 고대국어의 국어교육적 위상과 의의, 그리고 교육 내용에 대해 석독구결을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았다. 중세국어는 어디에서 왔는가, 그리고 중세국어 이전에 우리

13) ⑨와 같은 시도는 어디까지나 석독구결이 지닌 ⑤다의 특징을 극대화해 보이기 위한 것으로, 이를 실제로 활용할 때에는 석독구결 본래의 모습을 왜곡하지 않도록 충분한 설명과 가정이 필요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14) 석독구결을 포함한 차자표기에 대한 내용은 국어 생활사 및 문화사 교육의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것은 한글이 만들어지기 이전 시대에 실생활에서 한자를 이용해 우리말을 표기하려 했던 다양한 노력이 새로운 문자를 발명한 사실 못지않게 중요하기 때문이다. 세종의 한글 창제가 우리 민족의 저력을 보여 주는 상징성을 지닌다고 한다면, 석독구결을 포함한 차자표기는 한글 창제가 가능할 수 있도록 이전 시대부터 오랜 시간 온축해 온 우리 문화의 힘을 증언하고 있다.

말의 역사와 흔적이 있었는가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의 발길은 고대국어로 향할 수밖에 없다. 또한 국어사 교육이 추구해야 할 방향 중 하나인 탐구 가능성을 충족시켜 주는 것이 석독구결이라는 점도 알 수 있었다.

본고를 마무리하며 필자는 국어사 연구의 회고와 전망에 대해 이야기하며 마지막에 언급했던, 이기문 교수의 다음과 같은 당부를 떠올려 본다.

> 이 발표의 첫머리에서 저는 국어사 연구를 헛집을 짓는 일에 비유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학자들은 그 건설 현장의 한 귀퉁이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어느 귀퉁이를 택하느냐 하는 것은 각자의 능력과 취향으로 결정됩니다. 자기가 택한 귀퉁이에서 정성을 다하여 일을 할수록 좋은 학자가 됩니다. 그런데 한 귀퉁이에서 일 하면서도 집 전체를 보는 눈을 기르기를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집 전체의 윤곽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를 아는 것이 자기의 일을 옳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어사 연구가 헛집을 짓는 일이라고 했지만 그것은 꿈과 상상력이 빛나는 고귀한 헛집이라는 점을 상기하고자 한다. 또한 집 전체를 보며 집을 짓는 것이 필요하다는 당부도 잊지 않으려 한다. 더불어 여기에 필자는 짓고 있는 헛집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집의 아름다움이 무엇이며, 이 집에서 우리가 무엇을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 마을 사람들에게 설명하여 사람들이 이 집의 가치를 알도록 해 주는 일, 이 일이 국어사 교육이 해야 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본다. 국어사 교육에 대한 국어사 연구자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한다.

▮ 참고문헌

김무림, 『국어의 역사』, 한국문화사, 2004.
_____, 「口訣 및 吏讀 漢字音 硏究의 回顧와 展望」, 『구결연구』 제26집, 구결연구, 2011, 55-76면.
김민수, 『新國語學史』(全訂版), 일조각, 1980.
_____, 「고대국어 연구의 기본과제」, 제18회 국어사학회 전국학술대회 발표집(동국대 다향관 세미나실), 2005년 2월 2일.
김성주, 「字吐釋讀口訣 硏究의 回顧와 展望」, 『구결연구』 제21집, 구결학회, 2008, 39-66면.
김완진, 『鄕歌解讀法硏究』, 서울대 출판부, 1980.
_____, 『향가와 고려가요』, 서울대 출판부, 2000.
김유범, 「고대국어 문법 연구의 회고」, 『한국어학』 제55권, 한국어학회, 2012, 41-64면.
김준영, 『鄕歌文學』, 형설출판사, 1979.
남풍현, 「古代國語의 時代 區分」, 『구결연구』 제11집, 구결학회, 2003, 1-22면; 『古代韓國語硏究』, 시간의물레, 2009, 16-36면 재록.
_____, 「韓國의 古代口訣資料와 그 變遷에 대하여」, 『국어사 연구 어디까지 와 있는가』, 태학사, 2006, 615-637면.
_____, 『古代韓國語硏究』, 시간의물레, 2009.
_____, 「韓國語史 硏究에 있어 口訣資料의 寄與에 대하여」, 『구결연구』 제25집, 구결학회, 2010, 5-20면.
문현수, 「周本 『華嚴經』 點吐釋讀口訣의 解讀 硏究」,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17.
박지용 외 편, 『향가 해독 자료집』(PDF), 서울대 대학원 국어연구회, 2012.
박진호, 「鄕歌 解讀과 國語 文法史」, 『국어학』 제51집, 국어학회, 2008, 313-338면.
박형우, 「국어사 교육 내용의 선정 기준」, 『국어사연구』 제16호, 국어사학회, 2013, 7-33면.
서재극, 『신라 향가의 어휘 연구』, 계명대 출판부, 1975.
이기문, 『新訂版 國語史槪說』(초판 제1쇄/수정판 제19쇄), 태학사, 1998/2008.
_____, 「국어사 연구의 회고와 전망」, 『국어사 연구 어디까지 와 있는가』, 태학사, 2006, 45-70면.
임용기·홍윤표 편, 『국어사 연구 어디까지 와 있는가』, 태학사, 2006.
장경준, 「點吐口訣 硏究의 成果와 當面 課題」, 『구결연구』 제21집, 구결학회, 2008, 67-98면.
장윤희, 「석독구결 및 그 자료의 개관」, 『구결연구』 제12집, 구결학회, 2004, 47-80면.
전정예, 『새로운 국어사 연구론』, 경진, 2010.
정재영, 「韓國의 口訣」, 『구결연구』 제17집, 구결학회, 2006, 129-189면.
황선엽, 「고대국어에 관한 국어사 교육」, 『국어사연구』 제16호, 국어사학회, 2013, 35-61면.

【Abstract】

On Education Contents of Ancient Korean Language and Seokdok-Kugyeol (釋讀口訣) from the point of view of Education of Korean Language History

Kim, Yu-Pum*

This paper starts from the viewpoint that it is necessary for Korean language researchers to be interested in education of Korean language history as well as research of it. Starting from the current state of research and education of Korean language history, I have discussed the status and significance of ancient Korean language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and the contents of it mentioning Seokdok-Kugyeol (釋讀口訣). In order to answer the question of where Korean language came from, and what history and traces of Korean language existed before the Middle Korean, we have no choice but to go to ancient Korean language. I pointed out that it was very Seokdok-Kugyeol that satisfied the possibility of inquiry, which was one of the directions for education of Korean language history to pursue in relation to the educational contents of ancient Korean language. Seokdok-Kugyeol is an interesting educational content in that it shows how the Chinese sentences are syntactically different from the Korean sentences and how the grammatical elements of Korean are written in Kugyeol in order to understand it in Korean language. In order to make the precious and valuable research contents about Seokdok-Kugyeol flower, the interest and effort of many people engaged in research and education of Korean language history are asked.

Keywords: Education of Korean Language History, Contents of Education, Ancient Korean Language, Chinese Character-Borrowing System, Seokdok-Kugyeol (釋讀口訣), Inquiry Study.

접수일: 2019.03.31. ‖ 심사일: 2019.04.10. ‖ 게재확정일: 2019.05.17.

* Professor,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Korea University.